

# 환경설계의 다이어그램적 설계사고에 관한 연구

- 다운스뷰 공원 설계경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

신근혜\* · 조경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 I. 서론

오늘날 우리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가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다. 현대 도시의 특성은 흐름, 유동성, 불확정성, 비위계성, 다중심 등으로 대변되며 기술진보,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경험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전 지구를 한 눈에 보는 등, 이전의 제한된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대생활의 속도는 점점 가속이 붙고, 도시로 대표되는 현대의 공간 변화 또한, 시간의 궤적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흐름이 빠르고 그 예측 또한 힘들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의 조건들은 유동적이고 복잡적이며,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사회, 문화, 경제적 흐름들이 충돌하는 힘의 장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달라진 상황들은 정태적이고 고정된 것들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설계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에 기인하며 새로운 도시의 상황은 많은 흐름과 힘들이 겹치고 간섭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설계는 구축된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현실의 구축을 목적으로 삼는다. 디자인의 개념을 전달하고 사고를 발전시키는 설계과정은 수많은 시각적 사유들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진행과정 상에서 사용하는 설계방법들은 설계가의 성향에 따라서 스케치, 다이어그램, 모형 등으로 다양하다. 우리가 보아오고 실제로 적용하는 전통적인 디자인 방식은 주로 도면작업을 주 전달매체로 하지만, 새로운 디자인 과제에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관심도 또한 끊이지 않는다. 본 연구는 바로 설계과정에서 보고 쓰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그 의문은 “보는 방식이 다시 만드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본 연구는 보는 방식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다음의 두 가지 논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하나는 시각체제의 구조와 환경설계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다음은 형태적인 것에서 다이어그램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환경설계의 경향에 대한 것이다. 본 고에서는 다이어그램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환경설계에서의 구체적인 사용을 통해서, 원근법이 보는 못하는 것을 ‘보는 방식’인 다이어그램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종래의 환경설계의 보는 방식인 원근법의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보는 방식으로 다이어그램적 보는 방식을 제시하며, 다이어그램이 현대의 시공간적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설계의 도구로서 가능성이 풍부함을 밝히고자 한다.

## II. 환경설계의 시각체제

### 1. 보는 방식과 환경설계

라캉의 시각과 주체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시각체제(the scopic regime)라는 개념은 보는 방식이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며 그 표상인 이미지를 매개로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 맺는 관계의 구조를 조명한다. 보는 것은 순수한 생리적 인식과정이지 아니며 보는 방식은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생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보는 방식은 다시 환경을 만드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시각체제의 기본적인 골격은 사회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시각의 장이다. 본 연구는 보는 방식, 즉 주체가 대상을 보는 방식인 시각체제에 대해 다루며 이를 환경설계에 변용하여, 설계가(혹은 분야)가 설계대상(환경)을 바라보는 방식에 적용한다. 이는 주체와 대상간의 관계성

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환경설계의 변화하는 양상을 보는 틀이 된다. 설계그림은 다양한 시점에서 표현될 뿐만 아니라 표현되는 대상 역시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점들은 설계그림의 어떤 '시점'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읽을 수 있게 한다. 시각체계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보여준다. 환경설계그림이라는 시각장치는 주체가 세계와 어떤 관계 맺기를 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 2. 원근법적 보기

주체가 대상을 소유하는 혹은 통제하는 양상을 원근법적 보기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의 시각문화에서 지배적인 시각양식이자 재현양식은 15세기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창안된 원근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도 자연스러운 시각 체제라고 믿는 원근법은 세계와 관찰 주체 사이의 거리를 상정하고 대상을 소실점이라는 동일 지평에 투명하게 배열하기 위한 인공적인 고안물이며, 과학적 사유의 산물이다. 원근법의 시각은 시각공간을 미리 합리화하고 그 속에서 보이는 것들을 시각적 통제의 대상으로 만든다. 원근법을 의미하는 단어 'perspective'는 시각양식뿐만 아니라 전망, 예상, 사고 방식 등을 의미 또한 지닌다. 이는 원근법의 역사적인 위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설계에 있어 주체가 세계를 보는 방식을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된 것은 도면작도 방법의 발전과 함께 설계가의 역할이 자리잡혀가면서이다. 시행착오와 경험에 의한 수공예적 디자인에서 설계자의 생산자 사이의 축척도면이라는 수단으로 통한 디자인으로 변화한 것이다. 설계에서의 시각적 사고가 도면이라는 시각적 매체를 매개로 하면서 제도화된 틀 속에서 원근법이 보는 방식으로 정착하였다.

## 3. 다이어그램적 보기

환경설계의 대상인 환경은 시간에 걸쳐 자라나며 변화하는 것이다. 최종적인 것이 아닌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계획하는 것은 과정을 위한 모델을 계획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근법적 보기와 다이어그램적 보기의 차이는 공간의 구성에서 시-공간의 구성으로 크게 차별화 된다. 다이어그램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환

경설계에서의 구체적인 사용을 통해서 원근법이 보는 못하는 것을 '보는 방식'인 다이어그램의 새로운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원근법이 눈에 보이는 공간을 재현하기 위한 시각적 구성이라면, 다이어그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움직임이나 관계, 비가시적인 요소들을 시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각적 구성이다. 원근법이 보는 못하는 것을 '보는 방식'인 다이어그램은 원근법이 간과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갖는다. 다이어그램은 '시각화하기 어려운 변수'를 시각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하는 환원적 표현이라는 형식상의 특성으로 기존의 디자인 과정에서도 사용되었지만 대개 정보를 요약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구나 프레젠테이션의 도형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왔다. 디자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인 버블 다이어그램은 평면도를 그리기 전단계인 듯 그대로 형태로 옮겨져 실체화되었기 때문에, 디자인 사고를 다변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이어그램은 '표현 장치라기보다는 실행 장치'이다. 선택 단계에서의 정보의 조사, 수집 및 대상 정보들의 여과를 통한 압축, 관계와 질서의 성립을 통해서 다이어그램은 사고를 다변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이어그램적 시각체제는 원근법적 시각체제에 결여되었던 부분을 보완한다. 원근법적 보기와 다이어그램적 보기는 보는 방식을 구조화하는 대상, 주체, 매체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주체의 측면에서 한 사람의 마스터가 다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변화하는 설계가의 모습과 전통적인 환경설계의 영역의 경계가 해체되고 하이브리드 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고정된 시점에서 다원적이고 유동적인 시점으로 변화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설계의 대상에 있어서 원근법적 보기는 공간을 순수한 것으로 보았다면 다이어그램적 보기는 수많은 흐름과 충돌의 장으로서 보는 것이 기본적인 차이이다. 공간의 형태만이 설계의 대상이 아닌 시공간적 프로세스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주체와 대상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재현적이며 구체적인 도면과 투시도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다이어그램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

## Ⅲ. 다운스뷰 공원 설계경기의 다이어그램

도시가 변화하듯이, 조경의 영역이라고 여겨왔던 공원의 패러다임도 변화했다. 도시의 허파로서의 공원에서 도시의 심장으로서의 공원으로, 도시와 도시문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으며, 공원을 만드는 주체 또한 조경에 국한된 것이 아닌 건축을 비롯한 다른 분야로 확장되었다. 공원 패러다임의 변화는 설계주체와 설계대상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운스뷰 공원 설계경기는 동시대가 공원을 바라보는 방식과 공원과 도시가 맺는 관계성을 보여준다. 다운스뷰 공원의 맥락을 통해서 (1) 후기산업도시의 도시적 상황 변화와 (2) 다분야의 협업에 따른 설계주체의 변화, 그리고 (3) 단계적 계획을 위한 과정의 설계라는 다이어그램적 보기와 설계사고를 읽을 수 있다.

도시화의 확장에 따라 중심부가 된 다운스뷰 부지의 도시적 맥락의 변화와 함께 인프라 시설인 공군기지의 폐쇄라는 도시공간의 재편성은 도시와 공원이 서로 개입할 수 있는 역동적 관계가 제시될 것을 요구했다. 다분야에 걸친 팀의 구성을 독려하고 단계별 전략을 요구한 설계경기 브리프의 변화는 한 사람의 마스터의 눈에 의해 계획이 총괄되던 방식에서 다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실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통적으로 많은 양의 다이어그램이라는 제현형식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설계그림은 기술적인 매체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모습의 변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들을 시각체제라는 사회역사적 구조로서 파악하면, 이미지와 시각 테크놀로지는 설계자가 환경에 개입하는 통로라 평가할 수 있다. 5개 결선작 안에서 14개의 평면도, 34개의 단면과 62개의 사진들, 68개의 투시도, 123개의 다이어그램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설계주체들의 구성 등에 의해 서로 다른 양상의 다이어그램들을 표출한다.

#### IV. 맺는말

설계는 구축된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현실 구축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러한 설계의 개념을 전달하고 사고를 발전시키는 설계과정은 수많은 시각적 사유 방식들의 과정이다. 설계행위를 위한 참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설계행위의 결과물들이 추가 되며, 그 결과물들은 실제 건조된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출판물이나 여타 매체들을 통해 우리에게 공개되어있다. 최근

유행처럼 출간되는 설계출판물들에 관해 표현의 과정과 의미의 부재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유행 속에서 다이어그램 또한 하나의 새로운 표현방식 정도로 표면적으로 흡수될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환경설계의 지형도를 시각체제의 변동이라는 구조적인 관계를 통해 읽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운스뷰 공원 설계경기의 내용과 그 결선작품들을 통해서 시각체제의 변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다운스뷰 공원 설계경기의 안들은 스스로 다이어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듯이, 또한 역으로 다이어그램의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것은 유동적인 설계안의 실현가능성이라는 문제이다. 당선작인 트리시티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레시피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과정 속에서 적절한 해석과 결정이 필요하다. 이 속에는 완결된 형태를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의 한계점을 지양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라는 긍정성의 이면에 트리시티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이미지에 그친다는 부정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원근법적 공간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의 매개가 오히려 그림과 설계의 관계를 가깝게 하여, 그림에의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위험성이 있다. 환경설계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현혹적이기만 한 그림은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

보는 방식이란 보지 못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익숙해진 일정 체제의 보는 방식에 의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반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세계가 단일한 시선으로 구성될 수는 없다. 단 하나의 눈 대신 복수적인 시각, 복수의 관찰하고 관찰 당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다이어그램은 생산력이 풍부한 무질서의 긍정성을 보여주는 현대문화를 대변한다. 그러나 다이어그램이 그림으로만 그쳤을 때에는 설계주체의 외부인에게는 가독성의 문제가, 실제로 구축되는 과정에서는 현실가능성의 문제가 뒤따른다.

#### 인용문헌

1. 주은우 (1998) 현대성의 시각체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조경진 (1999) 조경드로잉의 의미와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7(2): 140-151.

3. 배정한 (1998) 조경에 대한 환경미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4. Czerniak, J.(2001) Case: Downsview Park Toronto. New

- York: Prestel Verlag.  
5. <http://www.parcdownsviewpark.ca>